



KIEP 기초자료  
18-27

2018년 11월 9일

# 2018 파푸아뉴기니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준비 현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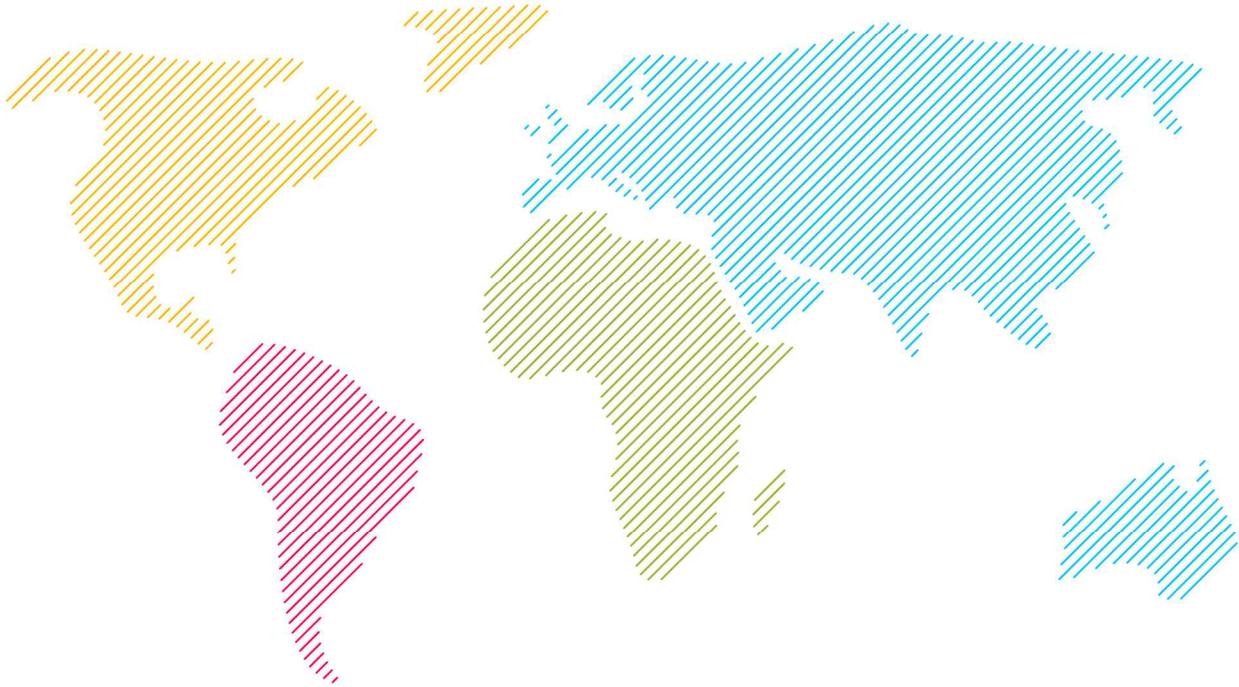
박은빈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연구원  
(ebpark@kiep.go.kr, 044-414-1046)

신민이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lshin@kiep.go.kr, 044-414-1154)

# 2018 파푸아뉴기니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준비 현황과 과제

## 요약

- ▶ 2018년도 APEC 정상회의는 11월 18일 파푸아뉴기니 수도인 포트모르즈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금년도 주제인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시대 대비(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the Digital Future)’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임.
  - 2018년도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는 3대 핵심 의제를 △연계성 향상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으로 설정함.
  
- ▶ 파푸아뉴기니가 설정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세 차례의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가 개최되었으며, APEC의 장기 목표인 보고르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APEC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토론의 장도 회기간 함께 개최됨.
  - (연계성 향상 및 역내 경제통합 과제) APEC은 연계성 강화를 위한 사업이 다수 제안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할 만한 주도국이 부재한 상태이고, FTAAP 실현을 위한 사업 관련 회원국 간 의견이 불일치하여 사업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 증진) APEC은 취약계층(여성, 중소기업 등)에 혜택을 공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성장 증진 사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사업 제안 및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 APEC은 2018년도에 각 회원국의 구조개혁 수준을 자가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 외에도 논의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 초불확실성의 시대 및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으로 FTAAP 실현에 대한 경로(pathway) 제시와 다자무역체제 지지 및 보호무역주의 배경에 관하여 회원국들의 뜻을 모으기가 어려운 상황임.
  - 미·중은 역내 무역투자위원회(CTI) 다수 사업에 대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양국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향후 입장차가 있는 분야의 논의 및 사업 이행 속도가 더뎠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중국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러한 불확실한 정세 가운데 정계,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APEC을 통해 다중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역내 자유무역의 진전 및 경제통합에 대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



## 차 례

1. 머리말
2. 2018 APEC 주요 논의사항
  - 가. 주요 이슈별 논의사항
  - 나. APEC의 향후 비전 설정
3. 2018 APEC 정상회의 주요 의제
  - 가. [핵심 의제 1] 연계성 향상 및 역내 경제통합 심화
  - 나. [핵심 의제 2]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 증진
  - 다. [핵심 의제 3]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

## 4.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부록: 파푸아뉴기니 경제 동향

## 1. 머리말

■ 2018년도 APEC 개최국이 역대 GDP 기준 가장 작은 국가이자 부족한 인프라, 치안, 자연재해 등의 리스크가 있는 파푸아뉴기니(PNG: Papua New Guinea)<sup>1)</sup>로 선정된 이후 APEC 회의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 모든 산하회의가 개최되었고 11월 정상회의주간만 앞두고 있는 상황임.

- 파푸아뉴기니는 2018년도 주제를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시대 대비(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the Digital Future)’로 설정하였으며, △연계성 향상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3대 핵심 의제로 설정함.
- APEC은 지난 5년간 개발도상국가에서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해당연도 주제와 핵심 의제를 경제성장만이 아닌 포용적 관점에서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임.
- 특히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번 APEC 회의를 자국에서 개최함에 따라 회원국 간 경제협력을 통해 디지털 관련 경제 성장을 도모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함.
- 2018년 2월 1차 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8월 3차 회의까지 파푸아뉴기니가 설정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APEC의 장기 목표인 보고르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APEC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토론의 장도 함께 개최됨.

■ APEC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를 통해 파푸아뉴기니가 설정한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시대 대비’라는 주제가 파푸아뉴기니만의 과제가 아니라 현재 APEC 회원국 모두가 직면한 과제임을 확인함.

- 파푸아뉴기니는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 이행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 의제의 범위를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 APEC 회원국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응하기 위하여 데이터 이동 및 보안 이슈, 호환이 가능한 인프라 개발, 규제 및 표준의 현대화, 디지털 관련 인적자원 개발 등을 중심으로 논의함.
- APEC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얻은 혜택이 회원국 전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대화, 민관대화를 통해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 및 역량개발 사업을 이행함.

■ 2018년 5월에 개최된 제24차 APEC 통상장관회의(MRT: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에서는 미국이 다자무역 체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겨냥하여 불공정 무역관행 배격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중국은 일방적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중을 중심으로 갈등 양상을 보임.

- 회원국 간 입장차이로 인해 이번 APEC MRT 성명은 다자무역체제 지지에 관한 별도의 성명을 만들지 않고 의장성명으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함.

1) 파푸아뉴기니의 경제 동향은 부록에 정리.

- 지난 10년간 통상장관회의 직후 공개되는 다자무역체제 지지 내용의 별도의 공동성명서가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의장 명의의 성명<sup>2)</sup>으로 대체된 부분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 이에 보고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2018년도 APEC 논의사항 및 정상회의 의제별 준비 현황을 정리하여 APEC 정상회의 준비에 기여하고 더불어 APEC 향후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2. 2018 APEC 주요 논의사항

### 가. 주요 이슈별 논의사항

■ [다자무역체제] APEC은 지속되는 신보호무역주의와 오래된 다자간 통상체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sup>3)</sup> 무역정책이 무역·투자 자유화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역행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

- 한국, 일본, 러시아, 태국 등은 다자무역체제(MTS)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 결과 중 이행이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 APEC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APEC이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MTS를 지원하는 사업을 활발히 제안할 것을 독려함.
- 더불어 상기 회원국들은 WTO의 신뢰 회복과 함께 WTO 개혁 및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새로운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은 있으나 보호무역주의로 역행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 가운데 무역 확대를 유지하는 선에서의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을 강조함.

■ [FTAAP] 2016년도 정상회의 부속서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한 리마선언’이 채택되면서 APEC 회원국은 FTAAP 실현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 이행을 추진하고 있음.

- 금년도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는 리마선언 작업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포함한 FTAAP 진전 보고서 작성을 제안하여 현재 APEC 정책지원부서(PSU)가 작성 중이며, 다수 회원국은 11월 정상회의의 부속서로 채택되기를 희망함.
  - 다수 회원국은 FTAAP 전략적 공동연구(2014~16)에서 도출된 다섯 가지(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원산지) 작업 분야 외 다른 분야(국영기업, 노동 분야)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동의하였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의견이 대립됨.
  - 정상회의 전 마지막 고위관리회의(SOM3)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수 회원국은 동 보고서가 2018 정상회의에서 채택이 무산될 수 있음을 우려함.
- 그 외 APEC 회원국은 FTAAP 실현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으로 비관세조치에 관한 포괄 원칙 개발, 관세에 관한 연구, 원산지규정 모델 조치 업데이트 등의 사업을 제안 및 추진함.

2) 의장성명서는 모든 회원국의 컨센서스를 확보할 필요가 없음.

3) “WTO, IMF, World Bank Seek ‘Urgent’ International Trade Reforms”(2018. 9. 30), Bloomberg.

표 1. FTAAP 실현을 위한 리마선언 작업 프로그램 일한 사업

사업명	주도국	주요 내용
FTAAP 진전 보고서 작성	APEC PSU	· FTAAP 실현을 위해 2016년 채택된 리마선언의 작업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포함 · 미국은 일부 국가의 저지로 국영기업, 노동 분야 등에 대한 제안서가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 · 여타 회원국은 2018 정상회의 부속서로 채택되기를 희망
비관세조치에 관한 포괄 원칙 개발	뉴질랜드, 한국	· 비관세조치에 관한 포괄 원칙이 CTI3 계기로 승인 · NTM 원칙으로 투명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제표준, 비차별성, 예측가능성 등의 요소 강조
관세에 관한 연구	홍콩, 중국	· FTAAP 전략적 공동연구 관세 분석 부분의 내용 업데이트, 관세 인하 영향 분석 등 연구 추진 · PSU 작성 예정
원산지규정 모델 조치 업데이트	싱가포르	· 회원국의 2007년에 개발된 원산지규정 모델 관련 피드백을 토대로 업데이트 작업
FTAAP 실현을 위한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	일본	· FTAAP 내 디지털 무역 규범 형성을 위한 작업 · 중국은 디지털 무역의 개념이 정립된 후에 동 작업 계획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여 현재 채택되지 못한 상황
APEC 국영기업 관련 작업 계획	미국	· RTA/FTA 내 국영기업 관련 조항 검토 및 진전 사항을 FTAAP 진전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추진 · 중국은 WTO 규범이 소유주체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정 유형의 기업을 차별하기 위한 규범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힘.
FTAAP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	워크숍별 상이	· 한국: 지식재산권 분야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재권 분야 FTA 협상 이슈 소개, FTA상 WTO/TRIPS Plus 요소 분석, FTA 협상 및 이행 경험 공유 · 일본: FTA/RTA 경쟁 챕터 분야 워크숍을 개최하여 FTA 경쟁 챕터 현황을 논의하고 기본 원칙으로서 투명성, 비차별성 원칙 논의

자료: APEC 문서 2018/SOM3/015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인터넷·디지털 경제] APEC 회원국은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과 관련하여 기업의 데이터 이용 정책 및 규제 환경에 대한 연구, 디지털 무역 구성요소 파악, 전자상거래 규제에 대한 서베이, 전자상거래 인프라 규제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함.

- 파푸아뉴기니는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경제 이슈와 관련한 고위급 정책대화를 추진하였으며 정책대화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성장,<sup>4)</sup> 데이터 보안 이슈, 로드맵 이행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 한국은 고위관리회의를 통해 역내 디지털 경제 논의가 데이터 흐름 보장 등 디지털 무역의 '공급'을 촉진하는 측면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디지털 시장의 성장을 위해 같은 비중으로 '수요' 측면의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4) PSU 보고서인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촉진'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등을 기초로 취약계층(중소기업, 여성, 노년층, 농촌거주민 등)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함.

- [디지털 이슈 논의 체계] 디지털 경제의 논의 주제가 다양해짐에 따라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APEC은 전자상거래 의제를 포괄하는 디지털 경제 논의 그룹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AIDER)'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구축 및 이행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APEC은 2017년 활동을 종료한 SOM 산하 정보통신실무그룹(TEL)에 속한 인터넷경제임시조정그룹(AHSGIE)과 CTI 산하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의 논의 내용을 포괄한 디지털경제운영그룹(DEWG)이라는 새로운 협의체를 설립할 것을 제안함.<sup>5)</sup>
  - 일부 회원국들의 의견 차이로 새로운 협의체 설립은 어려워졌으나, 2018년도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는 ECSG를 디지털경제운영그룹(DESJ: Digital Economy Steering Group)으로 전환하여 로드맵을 총괄하고 SOM에 보고할 것을 제안함.
    - 파푸아뉴기니 제안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DESJ를 CTI 산하 실무그룹으로 존치하고 AIDER 이행 관련 작업은 SOM에 직접 보고 △작업 계획은 DESJ가 설정하고 각 세부사업 이행은 관련 협의체와 협력하여 진행 △TEL-DESJ 공동회의를 연 1회 개최하고 고위관리급 민관대화(PPD)를 격년으로 번갈아가며 개최 등이 있음.
- [서비스무역] APEC은 역내 서비스무역 규제환경을 파악하고 올바른 서비스무역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세계은행 및 OECD 등에서 개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활용한 APEC 지수를 개발하고자 함.
  - 서비스산업의 규모 증가로 최근 세계경제 현안에서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고 있지만 다른 유형의 상품무역과 달리 서비스무역을 가늠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무역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 이에 세계은행 및 OECD와 같은 국제기구가 개발한 STRI를 활용하여 회원국의 서비스 부문 개방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임.
    - 최근 우리나라 주도로 진행된 APEC STRI 실무그룹회의에서는 △ 기존에 개발된 STRI 활용 여부 △ APEC의 특성을 고려한 지수 필요 △ 단순비교가 아닌 정책에 대한 분석 목적으로 개발 등의 쟁점에 대해 논의함.

## 나. APEC의 향후 비전 설정

- APEC의 장기 목표인 보고르 목표연도(2020년)가 도래함에 따라 APEC 회원국은 보고르 목표 성취 정도를 평가하고 향후 비전 설정에 자문을 담당하는 APEC 비전그룹(AVG: APEC Vision Group)<sup>6)</sup>을 설립하여 이번 파푸아뉴기니에서 두 차례의 정례회의를 개최함.
  - AVG 위원들은 APEC의 미래비전 핵심 주제로 '사람 중심(people-centered)'에 대해 공통적으로 동의하였는데, 이는 2019년도 APEC 개최국인 칠레의 핵심 주제로도 선정되었고, 아세안 2025 비전인 '사람 중심, 사람지향의 공동

5) 광성일, 박은빈(2018), 「APEC 내 디지털 경제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 대응 방향」, KIEP 기초자료 18-09.

6) 2017년도 의장국인 베트남은 Post-2020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역내 논의체제로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학계, 정계, 재계에서 한 명씩 3명으로 구성된 AVG(APEC Vision Group) 설치를 제안하여 2017 합동각료회의에서 승인 받음.

체 추구'와도 맞닿아 있음.

- 위원들은 비전 설정 시 APEC의 기본 원칙인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개방화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APEC 주요 도전과제로 △경제 불평등으로 인한 반세계주의 △보호주의의 △인구고령화 △환경 및 기후변화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디지털 경제 및 기술변화로 인한 새로운 과제 등을 언급함.
- AVG는 APEC의 Post-2020 비전 달성 기한을 2030년 또는 2035년으로 설정할 것을 희망함.

■ 의장국인 파푸아뉴기니는 AVG와 함께 APEC의 Post-2020 비전 설정에 대한 아이디어 구상(brainstorming)을 위해 다중이해관계자 대화를 개최하여 학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 인사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함.

- 대화에는 APEC 회원국 고위관리, AVG 위원, APEC 사무국장,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의장,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APEC 정책지원부서(PUS)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석하여 보고르 목표의 미완점과 아태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해 논의함.
  - 대화 참석자들은 보고르 목표 달성 중 아쉬운 점으로 각국의 국내적 상황에 맞는 규제 정책의 미비, 비관세 장벽, FTAAP 진전 상황 등을 지적하였으며 아태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친환경 기술, 여성의 경제 참여 등을 언급함.
- 다중이해관계자 대화의 기조 연설자 Fukunari Kimura는 산업화의 흐름을 기술 발전에 따른 글로벌 분업화의 확대로 해석하고 국가의 발전 단계별 정부 지원 정책 또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함.

표 2. Unbundling 단계별 분업과 산업화

	글로벌화 이전	1차 분업	2차 분업	3차 분업
산업	농업	플랜테이션 농업, 광업, 노동집약적 제조업	기계화 산업	디지털 경제
주요 기술	자급자족	대량생산 대량 운송 시스템	공급사슬 관리, 시간에 민감한 로지스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구조	경제적 자급자족	비교우위	세분화 및 산업집적	혁신의 집중과 확산
기간	~1820	1820~1990	1990~2015	2015~

자료: Fukunari Kimura 다중이해관계자 대화 발표자료(2018. 8. 15) 번역.

- 1차 분업화(the first unbundling)는 철도와 같은 운송 인프라가 생기면서 무역 비용이 낮아져 상품의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생산과 소비의 구분(unbundle)이 발생하였고 이것을 산업 분야(industry-wise)의 국제 분업화라고 일컫음.
- 2차 분업화(the second unbundling)는 ICT 혁명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낮아져 국경 간 아이디어 교류가 활발해지고 생산에서의 unbundle이 발생하는 업무(task-wise)의 국제 분업화가 나타남.
- 3차 분업화(the third unbundling)는 업그레이드된 ICT 기술의 발전으로 비대면 채널이 개발되면서 B2C/C2C 매칭이 활발해져 사람이 이동하지 않아도 기술을 통한 국경 간 서비스무역이 가능해지는 노동(person-wise)의 국제 분업 현상이 나타남.

- Kimura 교수는 회원국별 분업화 단계에 알맞은 정책 입안이 필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APEC 회원국이 3번째 분업화 흐름으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연계성을 위한 발전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발언함.
- 3차 분업화 단계에서는 ICT 연계성의 발전으로 대량의 데이터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데이터 이동 규제 완화, 데이터 지역화(localization) 이슈 등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며 더불어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세제, 사이버 보안 등의 이슈를 포함한 백업 정책(backup policy)이 필요함을 언급함.

■ APEC 회의는 지난 5년간 개발도상 회원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주제가 포용적 및 질적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2018년 주제 또한 포용적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2017년 APEC 의장국이었던 베트남에서는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Creating New Dynamism, Fostering a Shared Future)'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4대 우선과제도 2018년과 크게 다르지 않음.
- 2017년 APEC의 4대 우선과제는 △인적자원개발 △역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현대화 △역내 식품시장의 발전 △지역경제통합과 질적 성장이 설정됨.
- 향후 APEC 회의는 개발도상국에서 개최할 예정임에 따라 주제가 '포용적 성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개발 정도가 다른 APEC 회원국 내 공동 번영(common prosperity)을 지향하기 위해 설정된 주제임.

■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면서 APEC 또한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포용적 성장과 혁신을 이루고자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주제 및 핵심 의제에 디지털 경제를 포함하는 추세임.

- APEC은 전자상거래 사용과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관심 증가로 2015년에 '인터넷경제임시조정그룹(AHSGIE: Ad Hoc Steering Group on the Internet Economy)'<sup>7)</sup>을 발족하였으나 APEC의 핵심 의제로 선정된 것은 2017년부터임.

표 3. 최근 APEC 개최국 및 주제 흐름

연도	개최국	주제	핵심 의제
2012	러시아	성장을 위한 통합, 번영을 위한 혁신 (Integrate to Grow, Innovate to Prosper)	· 무역투자 자유화와 지역경제통합 강화 · 식량안보 강화 · 안정적 공급망 구축 ·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2013	인도네시아	복원력 있는 아태지역, 세계 성장의 엔진 (Resilient Asia-Pacific, Engine of Global Growth)	· 보고르 목표 달성 · 형평성을 동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 연결성 증진
2014	중국	아·태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 구축 (Shaping the Future through Asia-Pacific Partnership)	· 지역경제통합 진전 ·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촉진 ·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

7) APEC은 정보통신 분야의 무역투자 활성화 및 경제기술 협력 증진을 위해서 1990년 '정보통신실무그룹'을 설치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거래 증가로 인한 전자상거래 이슈 논의를 위해 1999년에는 '전자상거래운영그룹'을 설치함. 최근 인터넷과 ICT 관련 이슈가 화두가 되면서 2015년에 AHSGIE를 발족함(박성일, 박은빈(2018), 「APEC 내 디지털 경제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 대응 방향」, 기초자료 18-09).

2015	필리핀	포용적 성장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 (Building Inclusive Economics a Better Wor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제통합의 진전</li> <li>· 중소기업의 지역 및 세계 시장 참여 제고</li> <li>·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투자</li> <li>·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li> </ul>
2016	페루	질적 성장과 인간개발 (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제통합과 질적 성장</li> <li>· 중소기업의 현대화</li> <li>· 인적자원 개발</li> <li>· 역내 식품시장의 발전</li> </ul>
2017	베트남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Creating New Dynamism, Fostering a Shared Fu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제통합 심화</li> <li>· 지속가능, 혁신적, 포용적 성장 진전</li> <li>· 디지털 시대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쟁력 및 혁신 강화</li> <li>·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li> </ul>
2018	파푸아뉴기니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시대 대비 (Harnessing Inclusive Opportunities, Embracing the Digital Fu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성 향상 및 지역경제통합 심화</li> <li>·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진전</li> <li>·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li> </ul>

자료: 저자 정리.

### 3. 2018 APEC 정상회의 주요 의제

- 2018년도 APEC 정상회의는 11월 18일 파푸아뉴기니 수도인 포트모르즈비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금년도 주제인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시대 대비’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며 핵심 의제별 준비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가. [핵심 의제 1] 연계성 향상 및 역내 경제통합 심화

- APEC은 역내 경제통합 심화를 위해 역내 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 및 다자무역체제 유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회원국이 제안한 사업이 특정 국가에만 이익이 된다고 생각될 경우 회원국 간 의견 충돌이 생겨 합의(consensus)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임.

- APEC 회원국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greement of the Asia Pacific) 실현을 위한 리마선언 이행과 관련하여 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원산지 등 분야별 작업 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 다만 최근 미국이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Committee of Trade and Investment)를 통해 FTAAP 실현을 위한 작업 계획 분야 이외의 사업(국영기업, 노동 분야 등)을 다수 제안하였으나 중국 및 홍콩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여 채택이 무산되는 등 주요 회원국 간 이견이 존재함.
- 다자무역체제(MTS: Multilateral Trade System)에 대하여 다수 회원국들은 지지 의사를 유지하는 반면 미국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정 회원국을 겨냥하여 불공정 무역관행을 배격할 것을 요청함.

- 이러한 회원국 간 입장차이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2018년 5월에 개최한 APEC 통상장관회의 성명서 중 다자무역체제지지에 대한 내용은 통상장관성명이 아닌 의장성명서(컨센서스 불필요)로 대체함.

■ 2019년도 APEC 개최국인 칠레에서 연계성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설정한 만큼 회원국 간 재화, 자본, 사람의 이동 활성화를 위한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APEC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APEC은 2005년 부산 로드맵을 통해 무역원활화실행계획(TFAP: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이 2010년까지 역내 무역거래비용을 5% 절감한다는 목표로 세웠고, 최종평가에서 목표치보다 더 많은 비용이 절감되었다고 평가됨.
- TFAP 후속사업인 공급망연결실행계획(SCFAP: Supply Chain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은 2015년까지 APEC 공급망 연결을 10% 개선하는 목표를 추진함.
  - PSU는 SCFAP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1단계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불충분한 인프라, 정보의 부족, 제도적 문제 등이 회원국들의 공통적인 도전과제였음을 언급함.
  - 현재는 SCFAP 2단계(2017~20년)가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SCFAP 2단계 제1병목점(통합국경관리 결여 및 후진적 국경 통관) 주도국가로서 성실무역업체(AEC) 제도 연구를 위해 회원국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해당 연구를 통해 역내 AEC 시스템 이행에 관한 이해 제고를 목표로 함.
- APEC은 2015년 중국 APEC정상회의에서 ‘APEC 연계성 청사진 2015-2025’<sup>8)</sup>을 정상선언 부속서로 채택하였으며, 동 청사진에는 역내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과 연관된 기존 이니셔티브와 향후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2025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분야별 구체적인 목표와 조치를 제시함.
  - APEC PSU는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 증진을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과 직면할 수 있는 도전요인을 다양한 분야의 연계성 증진 사업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고속철도 네트워크, 정보통신기술, 해상 물류,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시스템, 승객 기록 활용, 노약자 및 장애인 관광 접근성 분야의 사례가 포함됨.

표 4. 공급망연결동행계획 2단계(SCFAP II) 병목점 주요 내용

병목점	주도국	목적
통합국경관리 결여 및 후진적 국경 통관	한국, 호주	· 국경관리 현대화 및 단일화
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품질 및 액세스	-	· 교통 인프라(항만 시설 등) 품질 개선 · 서비스 품질(신속, 신뢰, 합리적인 비용) 보장 · 효율적인 운송을 위한 multi-modal 운송 촉진
물류 서비스 신뢰도 및 높은 물류 비용	-	· 혁신 및 시장경쟁을 통한 로지스틱 서비스 품질 개선 · 로지스틱 서비스 확장
규제 협조 및 모범 사례 한계	-	· 규제 조화 및 협력 추진
전자상거래 관련 후진적 정책 및 인프라 규제	미국	· 절차 간소화, 공급망 가시성 개선 및 전자상거래 관련 공동작업 추진

자료: 2018/SOM3/CTI/033, “Stocktake of Initiative for Supply Chains Connectivity Framework Action Plan Phase II.”

8) APEC(2015), APEC Connectivity Blueprint.

## 나. [핵심 의제 2]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 증진

- APEC은 해를 거듭할수록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무역·투자 활성화의 혜택을 취약계층에 분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
- APEC은 2015년부터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주제 혹은 핵심 의제로 설정하면서 회원국 간 혹은 회원국 국내에서의 차이를 포용하기 위한 사업을 제안함.
  - 미국은 장애 의제의 지속성 및 주류화를 위한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2018년도 APEC 개최국인 파푸아뉴기니는 9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과 경제포럼’을 개최하여 취약계층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함.
  - APEC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 농수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으며, 특히 ABAC 식량안보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민간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짐.
- APEC은 2018년도 주제를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시대 대비’로 설정한 데 이어 칠레에서 개최되는 2019년도 APEC의 핵심 의제에 취약계층인 여성을 포함하면서 본격적인 포용적 성장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태국과 베트남은 여성의 디지털 경제 참여에 관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2019년도 핵심 의제인 여성과 디지털 경제라는 두 핵심 주제를 포함시킴.
- 더불어 2015년 제안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보라카이 행동계획’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방안 모색을 위한 모범 사례 연구 및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함.
  - APEC은 이번 역량 개발 워크숍을 통해 Industry 4.0의 핵심 산업인 소프트웨어 분야의 글로벌가치사슬(GVC)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포용하는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함.

## 다. [핵심 의제 3]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

- APEC 정상들은 2015년 필리핀 정상회의에서 ‘구조개혁을 위한 APEC 개정 의제(RAASR: Renewed APEC Agenda for Structural Reform, 2016~2020)’를 채택하여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균형성장을 이루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APEC은 2010년에 종료 예정인 ‘구조개혁 이행을 위한 정상 아젠다(LAISR)를 대체할 ’신구조개혁전략(ANSSR: APEC New Strategy for Structural Reform)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1년 호놀룰루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별 구조개혁 이행을 위해 ANSSR(2011~2015)을 승인함.
  - 신구조개혁 전략은 2010년 정상회의에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시장 및 노동시장 개선,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참여 확대, 사회 안전망 확대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내용임.
- 2018년에 RAASR 중간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동 보고서를 통해 APEC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현황과 회원국별 구조개혁 수준을 자가 평가함.
  - 중간평가에 활용된 지수는 기업환경평가지수, 1인당 노동생산성, 사업성숙도 및 혁신지수, 65세이상 노동인구참여율 등이 있음.
  - RAASR 중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규제 및 기업 활동 촉진 측면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반면, 기업의 혁신

성 및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매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APEC은 구조개혁을 통한 포용적 성장 의제 발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제11차 모범규제관행(GRP) 컨퍼런스, 고위급 구조개혁관리회의(HLSROM) 구조개혁과 여성 이슈에 관한 민관대화 등을 개최하였고, APEC 경제정책보고서(AEPR)와 포용적 성장정책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함.

- 매년 발간하는 APEC 경제정책보고서(AEPR)의 2018년 주제를 '구조개혁과 인프라'로 설정하여 역내 분야별, 국가별 인프라 수요를 파악하고 고령화, 접근성, 자연재해에 따른 유형별 인프라 수요 및 공급 현황을 각 회원국 사례를 통해 공유함.
  - 더불어 본보고서는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 및 사회적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sup>9)</sup>에 대해 소개하였고,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회원국의 도전과제로 인프라 수요에 대한 정보 부족, 농촌지역의 포용성 및 연계성 부족, 질 높은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 공공인프라 혼잡 문제 등을 언급함.
- APEC의 경제위원회(EC)<sup>10)</sup> 의장 뉴질랜드 주도로 포용적 성장정책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제3차 고위관리회의 시 회람하였으며 △경제정책 및 법 등 기초적인 제도의 정립 △친(親)포용적 구조개혁 과제의 선별 및 추진 △구조개혁 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의 통합적 운용 등 세 가지 구조개혁 요소를 순차적으로 달성해야 할 것을 강조함.

## 4. 향후 전망 및 과제

■ 초불확실성의 시대와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FTAAP 실현에 대한 경로(pathway) 제시와 다자무역체제 지지 및 보호무역주의 배경에 관한 APEC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불참할 예정임을 밝힘에 따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 간 대화 가능성이 무산된 상황이었으나 최근 양국 간 무역 분쟁 타결 의지를 보임.
  -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는 중국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라는 관측이 있으며, 이에 따른 다자무역체제 지지에 관한 문구가 정상선언문에 포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sup>11)</sup>
  -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으로 APEC 일부 회원국은 자국의 금융권 시장에 큰 변동성을 경험하였으며 지난 10월 말 두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미·중 무역합의안 작성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실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긴장감은 여전한.<sup>12)</sup>
- 2018년 APEC 주요 실무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인해 역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18년도 정상회의에서는 APEC의 창설 목적을 상기하여 회원국 간 경제성장에 상호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역내 경제공동체 형성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APEC 내 FTAAP 진전 보고서, 다자무역체제 지지, 디지털 경제 논의체계 형성 등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미·중 간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양국간 입장차가 있는 분야의 논의 및 사업이행 속도가 더더질 것으로 예상됨.

9)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과 사회적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 ±10% 공공자본의 투자는 ±1.1%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포용성과 관련해서는 10% 공공자본 투자가 4.48%의 빈민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발표함. (APEC 문서번호 2018/SOM3/EC/016)

10) 구조개혁 이슈를 담당하는 APEC 3대 위원회

11) 「트럼프, 아세안 APEC 정상회의 불참...중에는 '반가운 소식」(2018. 9. 2), 연합뉴스.

12) "Trump-Xi Trade Deal Likely to Begin Rather Than End at G-20"(2018. 11. 4), Bloomberg.

- 미국과 중국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러한 불확실한 정세 가운데 정계,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APEC을 통해 다중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역내 자유무역의 진전 및 경제통합에 대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음.

■ APEC은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APEC 주요 회의에서도 디지털 경제 관련 대화 및 사업이 다수 제안·실행됨.

- APEC은 매 분기마다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정책·민관 대화가 개최되었고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혁신기술 역량 개발, 데이터 이동 자유화, 사이버보안 강화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향후 포용적 관점에서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임.
- 디지털 기술은 중소기업, 여성, 빈곤층 등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APEC은 회원국 간 혹은 국내 계층 간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3차 고위관리회의에서 ‘디지털 무역에서의 소비자 보호 증진을 위한 워크숍’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동 워크숍을 통해 디지털 시장의 수요 성장 기반이 되는 소비자 보호 규범의 역내 형성 양상과 그 도전과제를 확인하고자 함.
- 디지털 경제 이슈는 APEC 논의에 있어서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이자 APEC 경제 성장의 새로운 경쟁력을 활성화 할 이슈인 만큼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로드맵에 언급된 우선 분야<sup>3)</sup> 이행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APEC은 지역경제통합 및 역내 무역투자를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개발도상 회원국에서 APEC 회의가 계속해서 개최됨에 따라 선진 회원국에 비해 뒤쳐진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APEC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APEC PSU(정책지원부서)는 ‘APEC 연계성 청사진’을 통해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 증진과 관련된 기존 이니셔티브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한 연계성 개선방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을 강조함.
- 무역원활화사업(TFAP)의 후속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공급망연결실행계획(SCFAP) 1단계는 목표치보다 더 많은 비용을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2단계 사업(2017~20)은 5개 병목점(chokepoint) 중 2개 분야만 주도국이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역내 연계성 강화에 대한 정상 간 약속이 이루어지고 APEC의 핵심 의제로 다수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호주, 미국 등 소수의 회원국만이 APEC 공급망연결실행계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병목점 내용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해당 분야에 대해 책임을 갖고 이끌어 나갈 주도국이 선정되지 않은 상황임.
- 역내 연계성 강화에 대한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수요가 높은 만큼 사업 진행에 있어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해관계가 맞는 선진 회원국과 협력하여 병목점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 연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도 방법임.
- 더불어 정상선언문에 합의된 의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이행 완료된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존재한다면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을 추가하여 제안 및 추진할 필요가 있음. **KIEP**

13)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 개발 △상호운용 플랫폼 촉진 △브로드밴드 접근성 △총괄적 정부정책 △클라우드 어젠다 △역내 규제 동등성 체계 보장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 △공통 디지털 신원 확인 △인터넷 경제 규모 지표 구축 △데이터 개방 프로그램 △APEC 시민의 디지털 활용역량 보장 등.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권율 외. 2011. 2. 『국제사회의 태평양도서국 지원현황과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2017. 12. 『2017 외국의통상환경』 3권, 아시아대양주.  
 연합뉴스. 2018. 9. 2. 「트럼프, 아세안·APEC 정상회의 불참…中에는 ‘반가운 소식’」.  
 외교부. 2014. 11. 『태평양도서국 개황』.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김형주 서기관 자료 요청(2018. 8. 17).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2017. 8. 『파푸아뉴기니 개황』.

### [영문자료]

- ADB. 2017. “Papua New Guinea.” ADB Member Fact Sheet.  
 BP. 2018.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67th edition.  
 DTCL. 2017. 7. “PNG National Trade Policy 2017-2032.”  
 EIU. 2018. *Country Report Papua New Guinea*.  
 IHS Markit. 2018. 3. “Papua New Guinea Economic Outlook.”  
 IMF. 2017. “Papua New Guinea.” IMF Country Report, No. 17/411.  
 Oxford Business Group. 2018. “Clarence Hoot, Acting Managing Director,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IPA): Interview.” *PNG Report*.  
 PNG Treasury. 2015. “Papua New Guinea National Accounts 2007 - 2014.”  
 UNCTAD. 2018.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Investment and New Industrial Policies.”  
 WB. 2017. “Papua New Guinea Economic Update: Reinforcing Resilience.”  
 “Eyes of the world will be on PNG during APEC, says PM.” 2018. Radio New Zealand. (Sept. 19)  
 “US backs Taiwan’s APEC role.” 2018. TAIPEI TIMES. (Sept. 27)  
 “WTO, IMF, World Bank Seek ‘Urgent’ International Trade Reforms.” Bloomberg, (2018. 9. 30).

### [웹사이트]

- 외교부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pg-ko/index.do>.  
 APEC document database. <http://mddb.apec.org/Pages/default.aspx>.  
 StatesAPEC. [http://statistics.apec.org/index.php/apec\\_psu/index](http://statistics.apec.org/index.php/apec_psu/index).  
 UNCTAD, FDI Database. <http://unctad.org/en/Pages/DIAE/FDI%20Statistics/FDI-Statistics.aspx>.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UN Comtrade Statistics. <https://comtrade.un.org>.

## 부록: 파푸아뉴기니 경제 동향

### 1) 경제 전반

■ 파푸아뉴기니는 인구 830만 명, 1인당 GDP는 2,400달러, GDP 규모 200억 달러의 작은 경제규모를 보유한 개발도상국으로, 국가 주요산업은 천연자원에 의존해 있음(2017년 기준).

-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산업은 금, 은, 구리 등 광물자원, LNG, 농수산물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최근 주요 산업변화로는 2010~14년 엑슨모빌 주도하에 파푸아뉴기니 내 대규모 LNG 생산시설이 건설된 것이 있으며, 이후 2017년 LNG 총 수출량은 11.5bcm을 기록하며 아시아 4번째 LNG 수출국으로 집계됨.<sup>14)</sup>
- 피터 오닐 현 정부는 농수산업 등 1차 산업에 대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광업, 가스, 서비스 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sup>15)</sup>

■ 파푸아뉴기니는 2014년 경제성장률이 15.4%로 급등한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2.5%를 기록함.

- 2014년 파푸아뉴기니 경제성장률은 15.4%를 기록했으며, 이는 LNG 생산 및 수출의 본격적인 시작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가스 및 석유 부분을 제외한 다른 산업의 성장은 저조했음.
- 2015년 이후에는 주요 수출상품 가격 하락, 엘니뇨(El Niño) 현상으로 인한 극심한 가뭄, 주요 LNG 개발 프로젝트 종료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임.<sup>16)</sup>

부록 표 1. 파푸아뉴기니 주요경제지표 추이(2008~17년)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명목 GDP(십억 달러)	11.7	11.6	14.3	18.0	21.3	21.3	23.1	20.6	18.9*	19.8*
실질 GDP(증가율, %)	-0.3	6.8	10.1	1.1	4.6	3.8	15.4	5.3	1.6*	2.5*
인구(백만 명)	6.2	6.3	6.7	7.0	7.4	7.6	7.8	7.9*	8.1*	8.3*
1인당 명목 GDP(달러)	1883.5	1833.1	2132.2	2552.0	2865.8	2800.2	2973.3	2605.9*	2341.5*	2401.6*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1,987.1	2,607.0	3,092.2	4,322.6	4,001.3	2,825.5	2,305.2	1,737.7	1,656.1	1,735.0
환율(Kina/\$, 연말기준)	2.7	2.7	2.6	2.1	2.1	2.4	2.6	3.0	3.2	3.2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 연평균)	10.8	6.9	5.1	4.4	4.5	5.0	5.2	6.0	6.7*	5.4*

주: \*는 추정치이며 통계정보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파푸아뉴기니 특성에 기인해 최근 지표의 상당수가 이에 해당됨.

자료: IMF(검색일: 2018. 11. 4).

14) 2018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통계.

15) 외교부(2017), 『2017년 외국의통상환경 3권(아시아대양주)』, p. 570.

16) IMF(2017), Papua New Guinea, IMF Country Report, No. 17/411.

■ 2018년 파푸아뉴기니 경제는 APEC 개최, 원자재가격 회복세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진발생으로 인한 석유 및 가스 부문 생산차질, 외환수급의 어려움, 긴축재정정책 등에 따라 1%대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EIU는 2018년 파푸아뉴기니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으며, 특히 2018년 2월 발생한 진도 7.5의 지진으로 서던하일랜드 및 서부주의 주요 천연자원 생산 및 수출이 2개월간 중단된 것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함.<sup>17)</sup>
- Oxford Economics는 2018년 APEC 개최는 교통, 운송, 호텔, 레스토랑 부문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나, 최근 발생한 지진, 외환수급의 어려움, 긴축재정정책 등에 따라 2018년 경제성장률이 1.9%에 머물 것으로 전망함.<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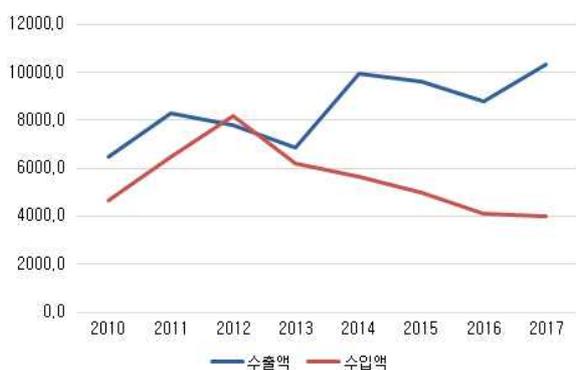
## 2) 무역

■ 2017년 파푸아뉴기니 수출액은 103.2억 달러로 역대최고치를 달성한 반면 수입액은 40.1억 달러에 그쳤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원자재, 수입 품목은 제조업 상품에 집중됨.

- 최근(2013~17년) 파푸아뉴기니의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동기간 수입은 감소세임.
  - 해당기간 수출액증가는 LNG 개발 사업완료에 따른 LNG 수출 급증에 기인함
-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성연료에너지, 귀석·반귀석·귀금속 등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보일러기계류, 전기기기·TV·VTR, 일반차량 등 제조업 품목이 다수를 이룸.

부록 그림 1. 파푸아뉴기니 수출입액 추이(201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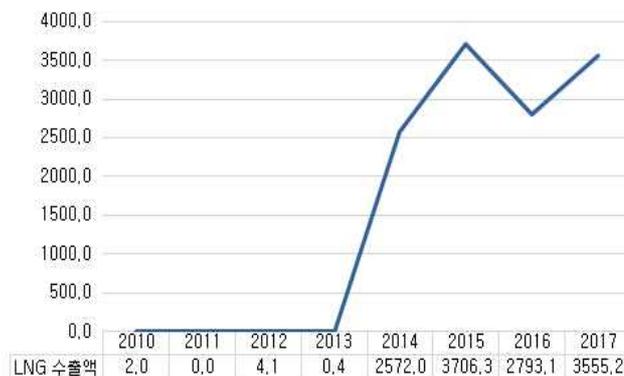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1. 1).

부록 그림 2. 파푸아뉴기니 LNG 수출액 추이(2010~17년)

(단위: 백만 달러)



주: HS Code 27110이며, 파푸아뉴기니 천연가스 수출은 전량 LNG 형태로 진행됨.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1. 4).

17) EIU(2018. 11. 2), Country Report Papua New Guinea.

18) Oxford Economics(2018.5.16). Country Economic Forecast Papua New Guinea.

부록 표 2. 파푸아뉴기니 주요 수출품목(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HS Code)	금액	비중
1	광물성 연료에너지(HS27)	4,662.6	45.2
2	귀석·반귀석, 귀금속(HS71)	2,153.5	20.9
3	광·슬랙·회(HS26)	892.1	8.6
4	목재·목탄(HS44)	736.5	7.1
5	동식물성유지(HS15)	654.8	6.3
	기타	1,220.3	11.8
	합계	10,319.8	100.0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1. 2).

부록 표 3. 파푸아뉴기니 주요 수입품목(2017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HS Code)	금액	비중
1	보일러 기계류(HS84)	705.5	17.6
2	광물성 연료 에너지(HS27)	522.3	13.0
3	전기기기TV·VTR(HS85)	364.3	9.1
4	일반차량(HS87)	282.4	7.0
5	철강제품(HS73)	165.9	4.1
	기타	1973.5	49.2
	합계	4014.0	100.0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1. 2).

■ 2017년 파푸아뉴기니 국가별 교역 비중에서는 호주가 수출 및 수입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으며, 비중은 각각 25.0%, 32.8%를 기록함(부록 그림 3, 4).

- 지리적,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호주가 파푸아뉴기니 수출입에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6년간(2011~17년) 수출입액 연평균 증감률(CAGR)이 각각 -6.2%, -9.4%를 기록하며 양국간 교역액은 하락세에 있음.
- 파푸아뉴기니의 대호주 수출액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수출품목은 석유(HS 2709), 은(HS 7106), 금(HS7108) 등이며,<sup>19)</sup> 수입의 경우 파푸아뉴기니의 대호주 수입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입액이 급감함.
- 파푸아뉴기니의 제2위, 3위 수출대상국은 일본, 중국이며, 파푸아뉴기니의 대일본, 중국 수출액은 증가세임.
- 2014년부터 본격적인 LNG 수출을 시작한 파푸아뉴기니는 수출량의 대부분을 일본,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음.<sup>20)</sup>
- 파푸아뉴기니의 주요 수입대상국에는 호주 외에 중국, 싱가포르 등이 있으며, 최근 파푸아뉴기니의 대중국 수입이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그 외에는 모두 하락세를 기록함.

부록 그림 3. 파푸아뉴기니의 수출대상국 비중(2017년)



주: 한국은 제 9위 수출대상국으로 비중은 1.9%임.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1. 1.)

부록 그림 4. 파푸아뉴기니의 수입대상국 비중(2017년)



주: 한국은 제 10위 수입대상국으로 비중은 1.0%임.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1. 1.)

19) UN Comtrade 통계(검색일: 2018. 11. 4).

20) 2018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통계.

부록 표 4. 파푸아뉴기니 국가별 수출 추이(2011~17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1	2013	2015	2017	연평균 증감률 (CAGR)
1	호주	3791.9	2893.9	2242.1	2579.0	-6.2
2	일본	927.7	888.5	2703.8	2421.6	17.3
3	중국	815.2	797.7	1774.6	2070.3	16.8
4	필리핀	246.0	208.8	125.2	380.9	7.6
5	네덜란드	229.0	111.0	80.1	345.3	7.1
	기타	2288.9	1951.8	2714.5	2522.7	1.6
	총합계	8298.7	6851.7	9640.3	10319.8	3.7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1. 1).

부록 표 5. 파푸아뉴기니 국가별 수입 추이(2011~17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1	2013	2015	2017	연평균 증감률 (CAGR)
1	호주	2,385.4	2,249.4	1,280.6	1,315.0	-9.4
2	중국	453.0	553.1	987.0	775.0	9.4
3	싱가포르	913.4	859.3	590.3	460.9	-10.8
4	말레이시아	594.0	549.4	353.0	334.4	-9.1
5	인도네시아	305.8	175.5	204.3	174.9	-8.9
	기타	1,830.9	1,795.5	1,550.5	953.8	-10.3
	총합계	6,482.6	6,182.1	4,965.7	4,014.0	-7.7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1. 1).

■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주요 무역정책으로는 2017년 8월 발표한 글로벌 통상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주도형 경제를 목표로 ‘국가무역정책(National Trade Policy 2017-32)’<sup>21)</sup>이 있음.

- ‘국가무역정책’에 포함된 정책으로는 무역 관련 인프라 확충, 수출 관련 해외 시장접근 강화, 농수산임업 등 부문별 정책 마련, 해외 직접투자 유치,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등이 있음.
- ‘국가무역정책’을 통해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국가무역사무소(National Trade Office)를 설립하여 파푸아뉴기니의 재화 및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을 계획함.
- 파푸아뉴기니의 대외수출은 대부분 원자재와 같은 1차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원자재가격 변동과 같은 외부충격 취약하기 때문에, 가격안정화기금(price stabilization funds)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외부충격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업 종사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함.

### 3) 투자

■ 파푸아뉴기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0억 달러로 집계됨(부록 그림 5).

21) PNG National Trade Policy 2017-2032, 파푸아뉴기니 산업통상부(201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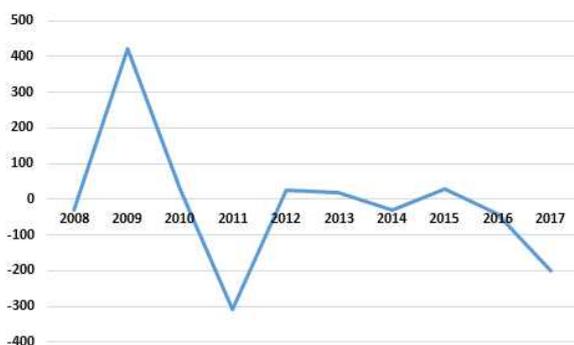
- 파푸아뉴기니의 FDI 유입하락세는 국영기업의 독점, 정치적 불안, 외국인 토지소유권 불허, 특정 산업 투자 제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sup>22)</sup>
- 하지만 UNCTAD 2018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의 지하자원에 대한 다국적기업 투자 잠재성과 2018년도 APEC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면서 주변국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FDI 유입량이 흑자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sup>23)</sup>

■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인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투자에 용이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투자촉진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동시에 외국자본에 의해 경제가 장악되거나 자국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기 위한 규제조치가 병행되고 있음.

-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1992년 투자진흥법(Investment Promotion Act)을 제정하고 투자진흥청(IPA: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ies)을 설립하였으며 최근 변화된 투자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동 법안을 재검토하여 투자 촉진 정책을 개혁할 계획임을 밝힘.<sup>24)</sup>
- 파푸아뉴기니의 투자진흥청은 외국인투자자로 설립된 기업에 대해 수출세 면제,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세 환급, 자국민 고용보조금, 지역개발산업에 대한 세금면제, 자국민지원 교육비 이중 공제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sup>25)</sup>
- 2018 Doing Business 기업환경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는 190개국에서 109위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0가지 부문에서 6개 부문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sup>26)</sup>
  - 개선된 분야로는 창업(0.51%p), 건축인허가(0.53%p), 전기공급(0.03%p), 재산권등록(0.11%p), 세금납부(0.38%p), 퇴출(0.16%p) 등이 있음.
- 한편 파푸아뉴기니는 자국민 소규모 사업 보호 목적으로 투자진흥청에서 다음과 같은 업종의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있음.

부록 그림 5. 파푸아뉴기니 FDI 유입액(2008~17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UNCTADstat(검색일: 2018. 11. 2).

부록 표 6. 파푸아뉴기니 외국인 투자 제한 산업

산업 종류	내용
농업	주로 5만키나 이하, 사냥 관련 활동은 전부 해당
임업	원목벌채 및 관련활동
수렵업	야생동물의 사냥이나 수집
어업	3마일 이내 연안 및 내수면어업, 갑각류, 연체동물 채취, 자연산 진주, 산호 등 해양물질 수집
소규모 광업	증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금 채취
케이타링	음식조달서비스
도소매	야생산림물질 도소매, 간이매점, 중고의류 및 신발류 도소매, 수공예품 도소매,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용 소매, 신발류 수선

자료: 외교부(2017), 『2017년 외국의통상환경 3권(아시아대양주)』, p. 580.

22) Santander TradePortal, "Papua New Guinea: Foreign Investment"(검색일: 2018. 10. 15).

23) UNCTAD(2018),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Investment and New Industrial Policies, p. 77.

24) Oxford Business Group PNG report(2018), "Clarence Hoot, Acting Managing Director,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IPA): Interview."

25) 외교부(2017), 『2017년 외국의통상환경 3권(아시아대양주)』, pp. 579~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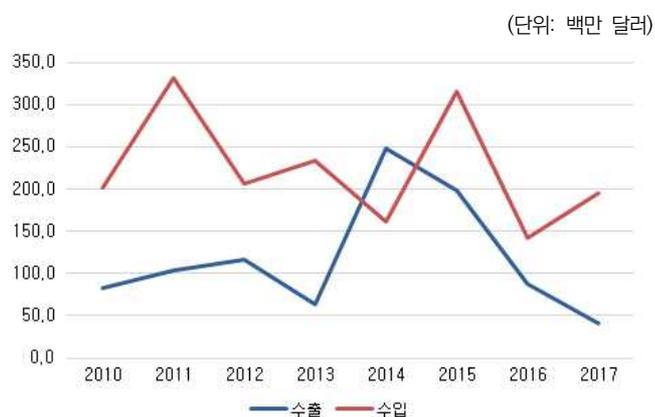
26) <http://www.doingbusiness.org/en/data/exploreconomies/papua-new-guinea#>.

## 4) 한국과의 관계

■ 한국과 파푸아뉴기니는 1976년 수교에 합의한 이후, 주목할 만한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음.

- 2017년 한국의 대파푸아뉴기니 수출액은 4,160만 달러, 수입액은 1억 9,550만 달러로 한국 전체 수출입의 0.01%, 0.04%로 미미한 수준임.
- 한국의 대파푸아뉴기니 해외직접투자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며, 2017년 한국의 대파푸아뉴기니 해외 직접투자액은 35만 달러,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의 0.001%임.

부록 그림 6. 한국-파푸아뉴기니 수출입(2010~17년)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1. 4).

부록 표 7. 한국의 대파푸아뉴기니 FDI(2010~17년)

(단위: 개, 천 달러)

연도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2010	1	3,790
2011	2	1,419
2012	2	1,540
2013	3	21,545
2014	1	46,120
2015	5	27,764
2016	0	1,452
2017	1	351
합계	15	103,98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2018. 11. 4).